



“이란 수비 뒷공간이 약점”

허정무호 내일 이란과 최종예선

“본선 진출 걸맞는 경기 펼칠 것”

“측면 공격이 강한 이란의 뒷공간을 노리는 게 중요하다”

허정무 감독이 20년 만에 찾아온 ‘월드컵 예선 무패’의 기회를 앞두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8차전 상대인 이란의 측면 공세를 역이용하겠다는 전술을 살피고 있다.

허 감독은 15일 오후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주요 전술은 호세인 카에비를 중심으로 한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라며 “우리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도르트문트)의 왼쪽 라인인 이란의 공세를 잘 봉쇄하고 공격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은 양측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에 나설 때 더러 불란제가 공간을 지원 하는 전술이다. 이럴 때 이란의 뒷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허 감독은 그러나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 한 만큼 남은 예선 경기는 본선을 준비하는 차원이 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인 만큼 본선 진출에 걸맞은 수준의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트레이너로서 예선 무패(9승2무)를 처음 경험했던 허정무 감독은 20년 만에 예선 무패 행진 기회를 맞은 소감에 대해 “그때와 비교하면 대표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고 해외에서 뛰는 선수도 많아졌다”라며 “예선 무패보다 본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애써 말했다.

허 감독은 특히 “이란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정신 무장도 뛰어나다. 이란이 쉽게 한국을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우리를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세대교체에 대해서 “대체로 성공적이다. 하지만 고참 선수들이 무조건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이에 상관없이 팀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언제나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오히려 선배들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정무 감독과 이문재(수원), 박지성은 이날 오후 훈련에 앞서 조준연 대한축구협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함께 파주NFC에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기념하는 ‘오! 필승 코리아’ 나무 식수 행사에 참가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대표팀에 5천만원의 축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자넷리의 강렬한 눈빛

당구스타 자넷리가 15일 오후 역삼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스타화보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직장·클럽 명예 드높이자!

‘임페리얼컵 FC 챔피언십’ 4개월 대장정 돌입

축구 동호인 큰잔치

아마추어 축구클럽 대잔치 ‘임페리얼컵 FC 챔피언십’이 지난 13일 대구·경북·강원권역대회를 시작으로 4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스포츠 조선과 위스키 임페리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차 예선을 갖고 각 리그 1·2·3 위팀들이 권역대회 출전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각 권역대회 우승팀들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전국결선에 참가하여 리그별 최강의 아마추어 클럽팀을 가린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는 물론 국민체육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축구사랑으로 이어 지고 있다. 기존 직장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챔피언십 리그와 찰리자 리그, 전국축구연맹회에 등록된 순수 아마

추어 클럽팀이 참가하는 클럽리그로 진행된다.

직장과 소속 클럽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료·선·후배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이 대회에 전국 축구클럽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 대회 시·도 예선은 6~7월 중 해당 시도연합회 일정에 따라 열리고 권역대회는 6~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전국결선은 9월 26~27일 이틀간 가질 계획이다.

한 회사가 챔피언십, 찰리자 리그 동시에 참가할 수 있으나 한 선수가 양 리그를 필수는 없다. 전국축구연맹회에 클럽으로 등록된 팀은 클럽리그로 참가해야 한다.

대회 참가 희망팀은 전국축구연합회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신청서는 www.koreasoccer.or.kr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문의 02-416-0273~4 /서승원기자 swseo@

추격전 불발... 신지애 아쉬운 3위

LPGA 맥도널드챔피언십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한국군단이 신에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의 돌풍 앞에 숨을 죽였다.

한국 남자군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크의 블루 골프장(파 72·6천641야드)에서 열린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맥도널드LPGA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신지애(21·미래에셋)를 앞세워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흔들리지 않고 타수를 줄여 나간 노르드크비스트에 우승컵을 넘겨 줬다.

신지애는 마지막 날 버디 6개에 보기 2개

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쳤지만 노르드크비스트를 따라잡지 못하고 3위(10언더파 27타)에 이름을 올렸다.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한 신지애는 12번홀(파3)과 13번홀(파4) 연속 버디에 이어 15번홀(파5)에서도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린 뒤 가볍게 1타를 줄여 희박한 역전 우승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13번홀까지 1타를 줄이는데 그쳤던 노르드크비스트는 14번홀(파4)과 15번홀(파5) 연속 버디로 경쟁자들의 추격에 쐬기를 막았다.

배경은(24)도 4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합계 9언더파 27타로 4위에 머물러 올 시즌 처음 톱10에 드는데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체육회·KOC 조직통합 급물살

오늘 이사회 정관 개정안 심의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조직 완전통합을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체육회는 16일 오후 2시 송파구 방이동을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KOC와 기구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구 통합의 핵심 내용은 현행 체육회 정관에 ‘특별위원회’로 명시된 KOC 규정을 삭제하고 양 기구를 일원화시켜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중심으로 역할을 개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육회는 현재 KOC와 합쳐 80여명에 이르는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현행 55개 가맹경기단체로 구성된 대의원은 16개 시·도체육회와 2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수 대표 1명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7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대의원의 투표권도 차등화시켜 33개 올림픽 종목 단체는 2표, 나머지는 1표씩만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박승순 회장 취임 직후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추진했던 체육회는 한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 차이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최근 대부분 합의를 마친 상태다. /연합뉴스

박지성 “2011 아시안컵 우승 후 대표팀 은퇴”

“2011년 아시안컵 우승이 대표팀 선수로서 마지막 목표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이 끝나면 대표팀 유니폼을 벗겠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15일 오후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4강도 이뤄본 상황에서 아시안컵 우승에 욕심이 있다”라며 “대표팀 은퇴 시기를 생각해 보면 2011년 아시안컵 무대가 될 것 같다. 꼭 우승해보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던 박지성은 이날 대표팀 은퇴 시기를 2011년 아시안

컵이라고 못박았다.

박지성은 2000년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에 발탁돼 그해 10월 레바논 아시안컵에 출전해 4강에 진출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해 3-4위전에서 중국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뒤 2004년 중국 아시안컵에도 나섰던 박지성은 8강에서 이란에 3-4로 져서 아쉬움을 남겼고, 2007년 아시안컵에선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지성으로서 월드컵 4강의 기쁨을 맛봤지만 정작 아시아 축구의 최고 잔치 무대에서는 우승 경험이 없다.

반드시 우승컵을 손에 들어보고 은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 까닭이다. /연합뉴스



16일(화)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세광고> 경기(12:50·Xports)

▲일본 프로야구 <세이부> 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 <기아> 두산(18:30·MBCSPN), <SK> 히어로즈(18:30·ETV), <LG> 한화(18:10·KBSN SPORTS), <롯데> 삼성(18:20·Xports)

NBA, LA 레이커스 15번째 우승... 코비 MVP 영예

LA 레이커스가 미국프로농구(NBA) 2008-2009시즌 정상에 우뚝 섰다.

LA 레이커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 아메이 아레나에서 열린 2008-2009 NBA 챔피언결정전(전4승째) 5차전 올랜드 매직과 원정 경기에서 99-86으로 이겨 4승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지난 시즌 보스턴 셀틱스에 2승4패로 저준우승에 그쳤던 LA 레이커스는 2001-2002

시즌 이후 7년 만에 정상에 복귀, 팀 통산 15번째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17차례 우승한 보스턴에 이어 두번째이다.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는 레이커스의 ‘주포’ 코비 브라이언트(31·사진)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원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서울	금호동 풍물아파트	23	18/12	1억300만	850만	
	동양동 대주파크빌2차	46	17/8	1억850만	1억290만	
	차림동 금호타운	33	17/1	1억230만	860만	
	용인동 새한신시빌	33	18/4	1억450만	1억100만	
	지림동 금호성원	52	17/11	2억400만	1억820만	
	화정동 화정주공	16	5/1	630만	440만	
	차림동 라인더우	25	20/20	830만	650만	
	진일동 힐튼메리	31	15/14	840만	580만	
	백운동 사옥스카이	32	15/9	900만	630만	
	백운동 라인	32	25/22	1억100만	770만	
남부	송파동 금호타운	31	20/1	900만	630만	
	송파동 라인아파트	32	25/22	1억100만	770만	
	송파동 솔릭스캐이빈	62	20/19	2억800만	1억960만	
	문정동 라인광명	31	18/1	1억100만	770만	
	지산동 삼성아파트	32	15/11	940만	660만	
	지산동 현대아파트	46	15/2	1억500만	1억500만	
	문정동 라인1차	50	11/3	1억450만	1억100만	
	용문동 대주파크빌2차	33	13/6	1억350만	940만	
	대림동 롯데낙천대	33	14/5	1억700만	1억190만	
	간곡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만	630만	
대구	매곡동 미라보아츠	33	20/14	900만	630만	
	매곡동 삼인아파트	32	20/9	820만	57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15	1억230만	860만	
	문정동 현대아파트	47	18/3	1억900만	1억330만	
	매곡동 삼성아파트	32	20/5	800만	560만	
	매곡동 삼익아파트	47	20/17	1억250만	87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43	15/3	1억200만	840만	
	남산동 주공아파트	26	20/8	630만	440만	
	산성동 해방삼그리다	34	15/12	1억350만	940만	
	칠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만	890만	
부산	칠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만	890만	
	신항동 호반메트로2차	34	24/12	1억600만	1억120만	
	칠계동 현대아파트	34	15/14	1억280만	890만	
	칠곡동 현대아파트	33	15/12	700만	49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대구	오치동(오치행정타운)	46/58	1억300만	720만	2층주택
		누른동(북성파울리스)	67/65	2억120만	1억190만	2층주택
		용문동(하이아파트)	46/59	1억140만	640만	2층주택
		두일동(두일초교부근)	38/51	1억	700만	2층주택
		백운동(백운초교부근)	43/40	860만	480만	2층주택
월산동(월산초교부근)		44/44	1억	680만	2층수리완료	
백운동(수파아파트)		38/43	980만	530만	2층주택	
월산동(삼아아파트부근)		34/37	770만	430만	2층주택	
나주 성북동(성북마을부수)		52/92	3억1300만	2억190만	3층(신축)	
남평동 광이리		87/23	360만	200만	단층농가주택	
상가주택/근린시설 (내집마련/상가임대)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남부	주월동(백운행정타운)	124/294	11억300만	7억800만	4층영원건물	
	월산동(동신행정타운)	124/371	10억450만	3억100만	5층(목욕탕)	
관산	월곡동(하이아파트내)	145/313	9억1400만	5억1200만	4층상가주택	
북구	오치동(오치사거리교)	268/670	22억	11억2800만	7층학원상가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부지/묘자리/무자)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대구	용문동(용문마을내)	는	907	6300만	4400만	
북구	도산동(송정초교부근)	는	4412	20억8600만	11억7000만	
관산	동명동(동명마을)	임야	13860	4억5800만	2억500만	
남부	송촌동(송촌마을)	는	1195	9900만	6900만	
관산	석곡면 유정리(유정마을)	는	889	2000만	1100만	
장성	간원면 용산리(용산마을)	는	807	8800만	6100만	
	풍곡면 월산리(2차선도로)	는	749	6200만	3470만	
영광	법성면 대덕리(북동마을)	밭	2225	4400만	2470만	
	홍농읍 가곡리	밭	1837	4000만	2200만	
중정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달양	금성면 행사(금성농공)	1532/277	2층	6억7800만	3억7900만	
장성	간원면 석곡리(연소재지)	346/253	2층	7억4000만	4억1900만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 몇일만 먹어도 머리가 빠지는게 멈추고
- 머리가 굵어지며 풍성해지고
- 새로나는 머리가 힘있게 올라오고
- 피부 트러블이 완전히 사라지고
- 배꼽아래 무모가 풍성해진다.

1개월내 효과 없을시 전액 환불!!

여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
남성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위축
원인을 알면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고민 끝내십시오!!!

상담전화 02)2677-0231-2/010-3518-8995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

강한 남자로 만드는 센-놈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절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관과 감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어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시 유희 속으로 지
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간편하며 그녀가 선호하는 강한 사
내로 변신 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상담전화 070-7786-8710/070-7786-9710
농협 569-12-034626(배의자)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